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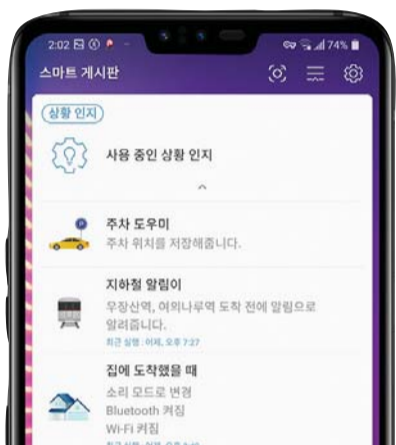
# 내 손안의 비서... LG전자, 첫 5G폰에 맞춤형 AI 무장

‘LG V50 씽큐’·‘LG G8 씽큐’

‘개인화’, ‘옛지 AI’ 기술 반영  
사용자 패턴학습 지능화 서비스

편의기능정보 폰 내부서 활용  
해킹 당해도 정보 유출 안돼

#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 스마트폰이 주차 위치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라고 알려준다. 내려야 할 지하철역이 다가오면 곧 내려야 한다고 안내해준다. 사용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 쿠폰이 있으면 잊지 말고 사용하라는 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LG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한 맞춤형 AI 서비스.

/LG전자

더 많은 정보를 수십 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인공지능(AI) 구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AI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LG전자는 19일 출시 예정인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와 최근 출시한 4G 스마트폰 ‘LG G8 씽큐’에 한 단계 진화한 AI를 적용하면서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처음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AI 업계의 최근 트렌드인 ‘개인화’와 ‘옛지 AI’ 기술을 반영해 AI를 구현했다.

개인화는 개인별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많은 업체들이 개인화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맞춰 알림, 팟캐스트, IoT 제어 등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아마존웹서비스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 실시간 추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옛지 AI는 인공지능의 계산을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사용자 점점의 기기

내에서 수행하는 기술이다. AI 연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서버로 보낼 필요가 없다. 퀄컴이 최신 AP 칩셋에 AI 기술을 넣었고 구글 클라우드 IoT 팀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구글 클라우드 팀은 옛지 AI 전용 반도체를 출시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런 기술을 종합해 LG스마트폰 사용자가 AI를 통해 편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정확하게 몰라도 맥락을 파악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자주 연락하는 전화번호를 추천해 주고, 약속, 스케줄 정보 등을 알아서 찾아준다.

예를 들어 지난 크리스마스에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맛있게 먹었던 치즈케이크 사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뒤적이지 않아도 된다. 갤러리에 들어가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후 ‘작년 크리스마스 명동 치즈케이크’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진들을 보여준다.

‘주차도우미’와 ‘지하철알리미’ 기능을 통해선 이용자가 잊고 지나치기 쉬운 실수를 막아준다. 통화 목록에서 최근 석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전화번호를 3

개까지 먼저 추천해 주거나 최근 통화 거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연락하지 않은 연락처를 먼저 보여주기도 한다.

이 같은 편의 기능들은 정보를 서버로 보내거나 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내부에서 정보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서버 해킹을 당해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손주호 LG전자 AI 개발실 팀장은 “LG전자는 AI 기술 개발에 있어 스마트폰의 주인인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100%의 확신과 투명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여러 회사가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개인화의 콘셉트를 강조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과의 관계가 단순히 제어하는 것을 넘어 TV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도록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LG전자의 AI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2종의 스마트폰 신제품을 시작으로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과 향후 출시될 보급형 스마트폰 등에도 제품 특성과 제원에 최적화된 AI 기능들을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현대차, 伊서 미래 고객경험 전략 선봬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모빌리티 내부 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맵핑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차의 미래 고객 경험 전략(UX) 방향성인 ‘스타일 셋 프리’ 콘셉트가 적용된 자동차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있다.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가  
‘스타일 셋 프리’ 콘셉트로 전시

현대자동차가 패션 산업의 중심지 이태리 밀라노에서 자사의 고객 경험 전략 방향성을 공개한다.

현대차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전시회인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해 미래 고객 경험 전략(UX) 방향성인 ‘스타일 셋 프리’ 콘셉트가 적용된 공간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가 올해 1월 CES 2019에서 공개한 ‘스타일 셋 프리’는 고객이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인테리어나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전기차가 스마트 IT 기기화되는 미래 모빌리티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차의 미래 고객 경험 전략 방향성이다.

현대차는 이번 디자인 위크에서 현대 디자인센터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약 12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 맵핑 퍼포먼스와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했다. 모빌리티 내부 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맵핑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차는 고객들에게 개인별로 맞춤형 모빌리티 공간을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스타일 셋 프리’의 핵심 콘셉트를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인프라코어가 ‘바우마 2019’에 참가해 독일 뮌헨 전시장에서 8500km 떨어진 인천의 굴삭기를 조종하는 5G 원격제어 기술을 시연했다.

## 두산, 뮌헨서 인천 굴삭기 원격 조종

독일 뮌헨 ‘바우마 2019’ 참가  
5G기반 원격제어기술 첫 선

두산그룹이 유럽 건설 시장 공략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대거 선보인다.

두산그룹은 8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BAUMA) 2019’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3년마다 열리는 바우마는 굴삭기와 크레인, 도로 장비, 광산 기계 등 제품의 최신 모델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규모 건설기계 전시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5G 통신 기반 건설기계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독일 뮌헨 전시장의 ‘5G 원격제어 스테이션(관제센터)’에서 약 8500km 떨어진 한국 인천의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독일-한국 간 원격제어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건설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 굴삭기에 부착한 센서로 작업 현장의 넓이와 깊이 정보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

는 ‘3D 머신 가이드스’ 솔루션도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한국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건설기계 솔루션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첨단 ICT 융복합을 비롯해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더해 건설기계 분야에서 기술 선도 업체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바캬트는 2~4톤급 R시리즈 미니 굴삭기 5개 기종과 소형 로더 8개 기종, 포터블과워(이동식 공기압축기) 등 총 30개 제품을 내놨다. 특히 소형 건설장비 업계 최초로 1톤급 전기 미니 굴삭기 E10e를 선보였다. E10e는 내연기관 없이 전기모터로만 구동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동급 디젤엔진 제품과 동일한 출력과 성능을 갖췄다. 1회 충전으로 최대 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두산바캬트는 이 외에도 유해 지역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상시 원격제어 적용이 가능한 소형 로더 제품을 소개했다. VR(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실제 장비를 시연해볼 수 있는 VR 룸을 비롯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AR(증강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도 운영했다.

/양성운 기자

## LG U+ “5G로 농촌 일상 바꿉니다”

농협중앙회와 ICT융복합사업 맞손  
농가 소득·편의, 안전·보안 솔루션

LG유플러스와 농협중앙회가 손잡고 농업인 복지·안전 증진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농협중앙회와 9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 및 생산·유통분야 정보통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ICT융복합사업은 L

G유플러스의 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과 관제시스템 등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농가소득·편의 솔루션’과 ‘안전·보안 솔루션’ 구축이 핵심이다.

농가소득·편의 솔루션에는 돼지의 출하체중 점검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양돈장 모니터링’, IoT 기반 바이오캡슐로 소의 건강을 관리해 한우 출하성적 향상 및 젖소의 유질향상을 돕는 ‘소 탐지 솔루션’ 등 농가 상황에 맞는 스마트팜 관제 서비스가 있다.

안전·보안 솔루션으로는 농업용 농약살포 ‘스마트드론’, 유해동물 감지 및 차단과 농작물 도난방지를 위한 ‘지능형 CCTV’, 농기계 고장관련 주요항목 사전진단, 실시간 모니터링의 ‘농기계



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협중앙회·LG유플러스 업무협약식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오른쪽)과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IoT화재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ICT융복합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전국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